

‘교육국제화특구’ 준비하는 여수 교육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장학금 등 효과

중3 우수학생 타지역 고교 진출 크게 줄어

교육국제화특구 거점도시 여수가 교육 중흥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9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여수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 다양한 장학제도 시행과 무상급식 대상자 확대 등 수준 높은 교육정책을 펴면서 지역 인재 붙잡기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우수학생 수는 지난 2011년 384명에서 올해에는 225명으로 크게 줄었다.

여수시는 이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교육국제화특구

육성계획에 따라 3개 분야 9개 단위 사업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 일선학교에 지원되는 시 교육경비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해 187억원으로, 학교급식으로 100억원, 학교체육지원비 5억원, 각급 학교 교육경비로 82억원이 지원되게 된다.

교육경비 가운데 40억원 정도가 원어민교사 인건비와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유·초·중학교의 각종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되면서 외국어 실력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교 확립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장학금 지급, 학교별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 자율형 공립고·마이스터고·기숙형고 등 명문학교 육성지원과 교원 사기 진작 사업 등 핵심사업에 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다른 지역보다 수혜 폭과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다.

지역 내 고교에 진학한 우수 중학교 3학년생에게는 1인당 350만원의 ‘관내고 진학장려금’이, 고교 2·3학년 상위 2% 학생에게는 1인당 100~200만 원의 ‘우수인재장학금’이 지급된다. 학업 성취율을 높여졌거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지역인재가 내고 학생들을 선발해 각각 50만 원의 격려금을 연말에 지급하는 등 다양한 장학정책을 자랑하고 있다. 시는 성적 우수학생들의 지역 학교 진학을 유도

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 고교 진학 장려금’을 성적에 비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역 고교생과 대학생 350여명을 선발해 50만~200만원의 장학금을 매년 2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있다. 여수 남면 출신의 박수관 회장(와이씨텍)도 지난 2년간 140여명의 학생들에게 2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기업들도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여수시 박계환 교육문화사업단장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가 지역 교육정책에 신뢰를 가질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수한 지역인재가 내고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고흥 우렁이농법 찰벼 첫 수확
 지난 4월 말경에 모내기를 해 100여일 만에 수확한 것으로 보통 중간생종 벼보다 생육시기를 2개월 정도 앞당긴 것이다.

지난 8일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한적마을 전운환(65)씨가 관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우렁이농법과 무농약으로 재배한 극조생종 청백찰벼 3000㎡를 수확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여수 화양 농공단지 악취 저감대책 추진

여수시가 화양농공단지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저감대책이 추진된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화양농공단지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던 관계자 회의결과를 토대로 주민, 학교관계자,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농공단지 주변 대기배출물질 전수조사와 악취 원인물질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악취 다양 배출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악취방지시설의 개선과 신·증설을 통해 악취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반 예산을 여수시 주경에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자증나는 무더위 한방에 날리려면 ‘레저스포츠 메카’ 보성에 오세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울포 솔밭해변에서 열린 ‘2013 남도보물섬 카약·캠핑 페스티벌’ 참가가족들이 카약출반선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사전신청자 200여명과 울포 솔밭해변에 피서를 즐기러 온 관광객 등 1000여명이 참가했다. <보성군 제공>

해수욕에 뽀빠·카약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가득

산과 바다, 호수,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보성군이 레저스포츠 대회와 각종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레저의 메카로 뜨고 있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는 보성컨트리클럽에서 보성CC 클래식 J골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3일은 갯벌에서 뽀빠를 이용해 달리는 제3회 전라남도 레저뽀빠대회가 열렸다.

또 지난 10일부터 11일에는 울포 솔밭해변에서 ‘2013 남도보물섬 카약·캠핑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레저스포츠 대회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2013 남도보물섬 카약·캠핑 페스티벌’에 사전신청자 200여명과 울포 솔밭해변에 피서를 즐기러 온 관광객 등 1000여명이 참가했다.

10일 오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카약체험, 캠핑요리대회, 풍등 날리기, 녹차카데일 체험, 녹차떡만들기, 다트던지기, 해수풀장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2인1조로 진행된 카약체험은 참가자들이 물러앉아 안전교육과 함께 노를 젓는 연습 후 바다에 나가 스틸을 만끽했으며, 자신의 소원을 담은 풍등 날리기는 아름답게 울포솔밭해변의 밤을 수놓으며 참가자들과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날 참가한 정선경(37)씨는 “가족들과 함께 참가했는데 평소 물을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카약을 즐기는 것이 신기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울포솔밭해변은 전국 3대 해변 중 한곳으로 해수풀장과 해수욕장, 오토캠핑리조트가 함께 자리하고 있어 남도지역 대표 여름 피서지로 유명하며, 인근에 위치한 회천수산물위판장에서는 싱싱한 수산물을 연중 구입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전북

부안 ‘마실 119’ 효과 특특

일상생활 중 긴급민원 해결 ... 한달만에 131건 처리

부안군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불편한 긴급민원 해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마실 119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마실 119 기동처리반이 지난 6월24일 가동된 이후 1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현재 총 159건의 민원이 접수돼 131건을 처리했다.

나머지 28건의 경우 예산이 필요한 민원으로 즉시 처리가 어려운 만큼 향후 계획 수립 및 예산 투입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로 했다.

접수된 민원은 분야별로 광고물이 43건(27%)으로 가장 많고 도로 35건(22%), 환경오염 15건(10%), 녹지공원 11건(8%), 교통시설 5건(4%), 기타 48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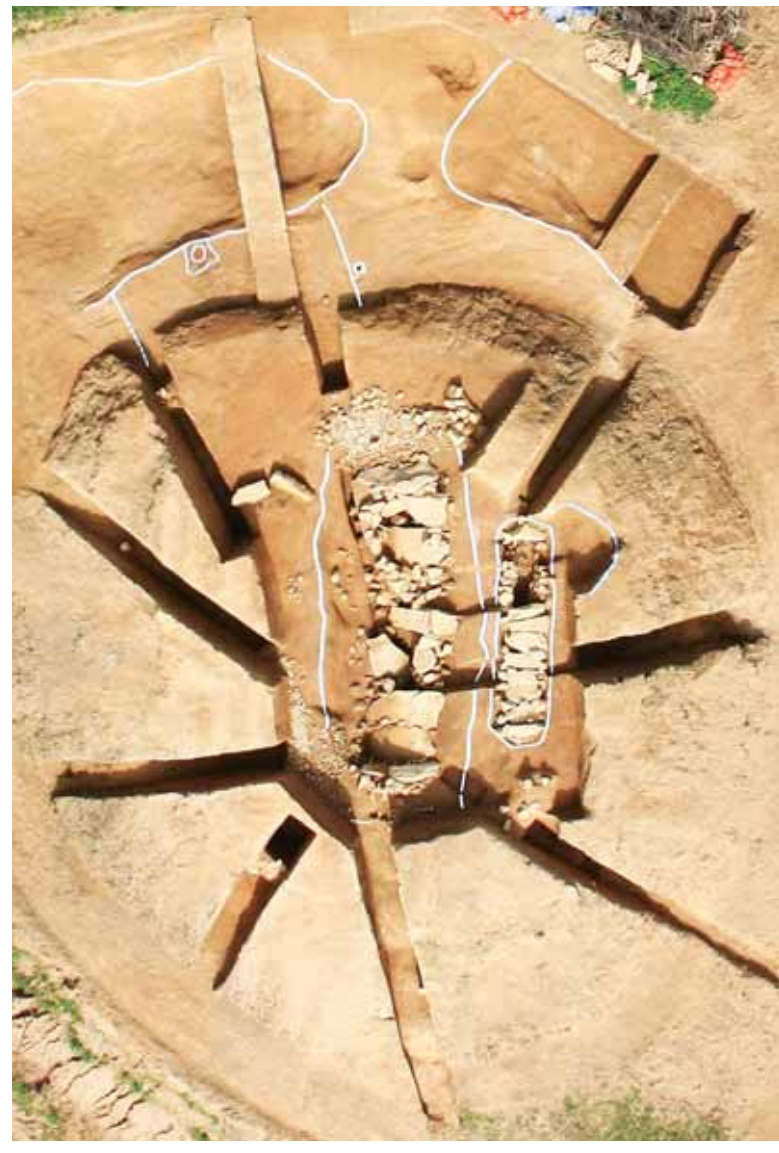
이 가운데 불법 광고물 제거로 관광객들에게 밝고 청결한 부안 이미지를 심어주고 주민안전과 직결된 도로시설 유지관리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그동안 전화민원 응대 시 해당업무가 아니면 전화를 계속 돌려 민원의 불만이 증폭됐으나 마실 119제도 시행 후 전화돌리기 행위 원천 예방에 큰 효과를 봤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생활 불편 기동처리반의 상시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실 119 기동처리반은 기획감사실이 총괄하고 민생경제과, 건설과, 환경녹지과, 종합민원실, 재난안전과, 새만금도시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수도사업소 등 9개 부서와 13개 읍·면 등 99명으로 구성됐다. 민원접수 방법은 기획감사실 전화(063-580-4119)로 가능하며 접수 후에는 해당 분야별 기동처리반에 통보, 현장에 출동해 민원처리에 나서게 된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남원 두락리·유곡리 고분군 항공사진

남원 두락리·유곡리 고분군서 금동신발 등 왕릉급 가야 유물

남원 두락리·유곡리 고분군(전라북도지정 기념물 제10호)에서 금동신발과 청동거울 등 다양한 유물이 쏟아져 학계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금동신발은 가야문화권에서 처음 출토됐고, 청동거울은 왕릉급 고분에서 부장품 예로는 삼국시대 최초로 판단되고 있어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는 전북대 박물관(조사책임 김승욱 교수)에 의뢰해 지난 5월29일부터 남원 두락리·유곡리 고분군을 조사에 나섰으며, 12일 오후 남원시 아영면사무소 및 발굴현장에서 학술자문위원회의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단신

정읍 용계동 용계마을 앞 들녘서 올 첫 벼 수확

지난 10일 올해 정읍지역 첫 벼 수확이 용계동 용계마을 앞 들녘에서 있었다.

이날 수확한 조생종 운두벼는 대형 유도업체에 전량 납품돼 추석용 쌀밥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영농조합법인 참농(대표이사 한병길)에서 20여 농가와 30ha에 이르는 면적에 계약재배를 추진, 지난 4월 말 첫 모내기를 실시해 3개월여 만에 수확을 끝냈다.

정읍시 관계자는 “올 여름 폭염으로 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했으나 다행히 이삭이 제대로 여물어 5.5ha의 논에서 40kg들이 830여포대를 수확해 좋은 작황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시장배 청소년클럽 풋살대회 17·18일 열려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청소년클럽 대회 풋살대회가 오는 17일~18일까지 이틀간 덕진체육공원(풋살장)에서 전국 고등학교 학생 동호인 클럽 소속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주시와 전주시풋살연합회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북지역만이 아니라 타 시도 청소년 8개팀 100여명도 참여해 청소년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 춘향골서 내일까지 전국 입업후계자 대회

(사)한국입업후계자 협회가 주최하고 산림청, 전라북도, 남원시 산림조합중앙회가 후원하는 ‘제22회 전국 입업후계자 대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남원시 춘향골 체육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국입업후계자 대회에는 ‘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전국의 입업후계자가 경쟁력 있는 입업기반구축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회원 간 우의와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5,200여명의 산림가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입산물음식경연, 어울림 한마당, 사례발표 및 강연, 입업인의 밤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군산시 '2013 군산 새만금에어쇼' 취소

군산시가 10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2013 군산 새만금에어쇼’를 취소했다. 군산시는 12일 “미국 정부의 자동예산 삭감 제도(시퀘스터) 발효에 따라 미군 국방예산이 대폭 감축돼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다고 판단,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에어쇼와 항공기·장비 전시는 대부분 한미 우호 차원에서 미국 공군이 지원하기 때문에 미공군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당초 10월12일부터 이틀간 비응향 인근 새만금 다용도부지에서 에어쇼를 열 예정이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전통시장에 ‘비가림아케이트’

4억들어 공사...9월 완공

시설현대화 사업 후 제2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순창전통시장이 주 소풍통로 비가림아케이트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은 12일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천후에도 안전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주 소풍통로 비가림 아케이트를 전면 설치하는 사업을 지난 5월부터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4억2059만원이 투입돼 836.78㎡에 캐노피와 막구조 등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오는 9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고추전을 중심으로 조성될 비가림아케이트 설치공사는 고추전 조 명시설 설치로 새벽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약천후에도 안전한 고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순창시장은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군내버스를 시장 내운행하는 등 농어촌 이용객 편의를 위해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번에 소풍통로 아케이트 설치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여 순창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60여억원을 들여 오래되고 낡은 순창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친 바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 지방공무원 채용 1870명 몰려 32.2대 1

전북도 지방공무원 58명을 채용하는데 무려 1870명이 몰려 3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북도는 12일 “‘2013년도 제3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최근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일반행정 7급으로 총 21명 모집에 1385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무려 65.9대1.

40세 이상 응시자도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하지만 여성지원자의 비율은 37.2%로 2회(52%)보다 크게 줄었다. 필기시험은 10월5일 전주 시내 중고등학교 5개 장소에서 시행된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